

‘기회’ 잡은 김호령, 타격 감 잡았다



나성범·박정우 이탈·최원준 부진 속 만점 활약 시즌 첫 멀티히트에 3타점·외야서 든든한 수비

야구가 재미있어진 KIA 타격수 김호령이 ‘자신의 것’을 찾을 수 있을까? KIA 타이거즈는 지난 28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홈경기에서 장단 17안타를 몰아치면서 13-7 역전승을 거뒀다.

선발 양현종이 5회를 채우지 못하고 4.2이닝 6실점으로 부진했지만 오선우와 윤도현의 홈런포로 추격했고, 하위타선의 활약으로 승부를 뒤집었다.

8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전했던 시즌 15번째 경기에서 첫 멀티히트와 함께 3타점 활약을 했다.

김호령은 ‘위기의 외야’에서 역할이 중요하다. 지금 외야에는 나성범과 박정우가 부상으로 이탈했고, 최원준도 부진의 시즌을 보내면서 엔트리에서 빠져있다.

중견수로서 수비 역할이 막중하고 김도영, 위즈덤까지 빠진 만큼 공격에서도 힘을 보태줘야 한다.

29일에도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면서 기회의 시간을 이어간 김호령은 “안타 못 칠 때는 진짜 스트레스받고 힘들었다. 그런데 어쩔지름 행운의

안타도 나오고 타점하나가 너무 재미있다”며 “앞서 2루타들을 기록했지만 그냥 한 번씩이니까 타율도 낮고 그래서 자신감이 없었다. 진짜 멀티히트 하고 싶었다. 올 시즌 초반에 못 치다가 하나씩만 나왔는데 운이 따르기는 했지만 멀티히트를 하니 좋았다”고 말했다.

김호령은 멀티히트를 기록한 28일 경기 전 이범호 감독의 원포인트 레슨을 받았다.

김호령은 “뒷다리가 빠져 있고, 칠 때 골반도 빠지고 하나가 감독님께서 반대로 크로스해서 치는 게 어떨까라고 하셔서 해봤다. 그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못하다가 어제 처음으로 해봤는데 타석에서 뭔가 잡혀있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다”며 “연습할 때는 조금 어색했는데 잘 안되니까 뭐라도 해봐야 하는 상황이다.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해봤는데 괜찮았다”고 설명했다.

타격에서의 좋은 결과가 수비로도 연결될 수 있는 만큼 김호령은 공수에서 모두 집중해서 결과를 내겠다는 각오다.

김호령은 “앞서 실책들이 있었는데 의욕이 앞섰던 것 같다. 상황 상황마다 생각하면서 해야 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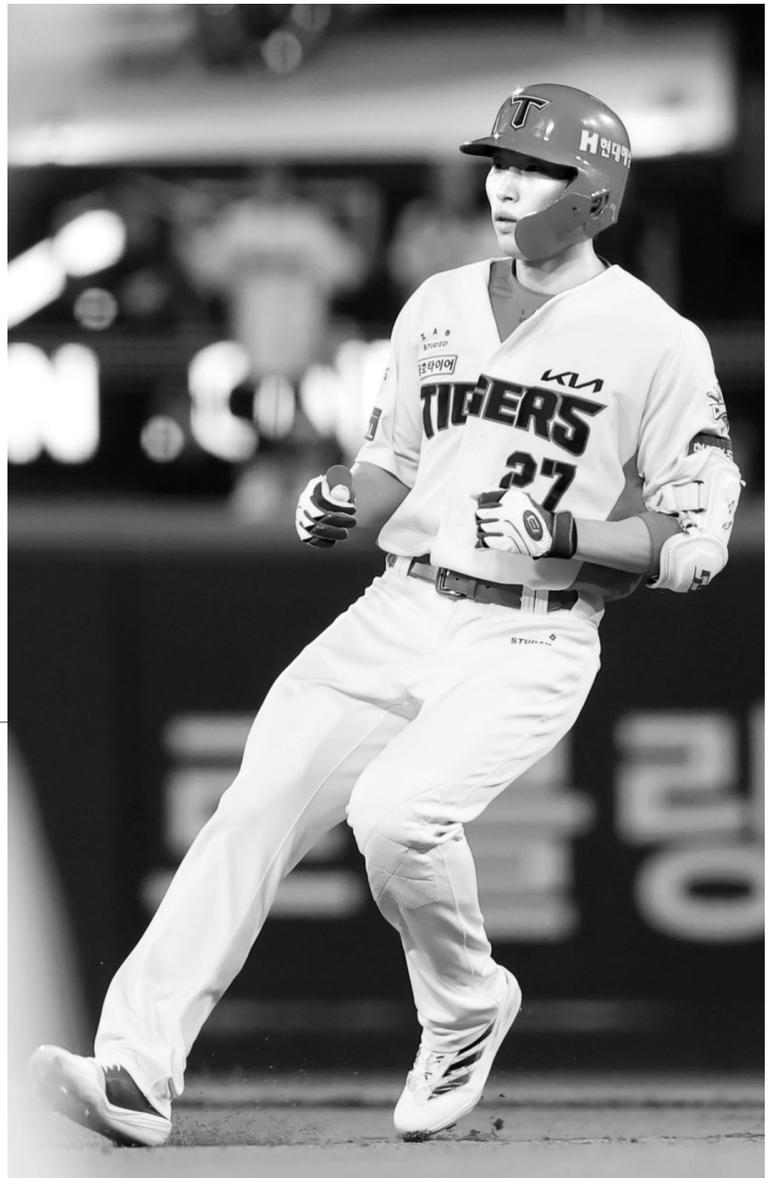
데 내가 앞주지만 생각하고 하다 보니 그랬던 것 같다. 타석에서도 결과가 나와야 수비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다”며 “기회를 얻었다. 전 경기 4타석에서 결과를 못 냈는데 다시 선발로 나와서 결과를 냈다. 지금 진짜 기회가 온 것 같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최대한 결과 내도록 해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이범호 감독은 “자기만의 것을 못 찾는 것 같다. 연습에 비해 결과가 안 나온다. 타격을 잘고 싶어 하는데 하나의 틀을 만들어주고 계속 내보내면 타격에 대한 자신감을 찾고 잘할 수 있는 것이다”며 “우측으로 가면 안타가 잘 안 나오는 선수다. 우측으로 가면 잡히니까 받아놓고 오는 것만 정확하게 친다는 생각으로 하자고 이야기해 줬다. 받아놓고 치면 스트라이크 존 좁힐 수 있으니까 쳐야 할 공, 아닌 공을 구분하면서 칠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범호 감독은 김호령을 중심으로 한 ‘수비의 힘’도 강조했다.

이범호 감독은 “LG와 한화 경기를 보면서도 많이 느낀 게 센터에서 수비 하나가 공격에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호령이 공격에서도 조금 더 잘해주면서 더 기분 좋게 수비하면서 투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잘 살려보겠다”고 이야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의 김호령이 위기의 외야에서 기회 잡기에 나선다. 김호령은 이범호 감독의 원포인트 레슨을 받은 지난 28일 시즌 첫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아빠 발자취 따라갈 수 있어 행복”...탁구 DNA 피는 못 속여

전국소년체전 광주 탁구 U12서 메달 획득...강진승·강도현 부자 강진승 “아들 경기 지켜보며 과거 내 모습 보는듯 해 감격스러워” 강도현, 7살때 탁구 시작...“올림픽 금메달 따서 아빠께 드리고 싶어”

“아빠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어 행복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서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제54회 전국소년체전대회’ 광주 탁구 U12에서 28년 만의 메달이 나왔다. 이번 메달은 부자(父子)가 만든 기록이라서 의미가 깊다.

지난 26일 양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소년체전 탁구 남자 U12 단체전에서 광주송정초 강도현(5년), 정준영(5년), 한준서(6년), 곽건우(6년), 이민혁(6년), 심지환(6년)은 충남선발과의 준결승에서 2-4 패하며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결과물은 1997년 춘천에서 열린 ‘제26회 전국소년체전대회’에서 광주선발이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딴 이후 초등 탁구 불모지인 광주에 안겨준 첫 메달이자 출전선수 강도현의 아버지 강진승(41)씨가 28년 전 그 메달의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제26회 대회에서 대성초 강진승, 김순명, 이동혁, 김동하, 양동호 장동욱과 추상연으로 이뤄진 광주선발팀은 천안시초를 상대로 1-4패하며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강진승씨는 “아들의 경기를 지켜보며 28년 전 내 모습을 보는듯 했다. 그동안 광주 탁구 U12에서 메달이 나오지 않아 아쉬운 마음이 컸는데 불

꽃을 터져서 선수로서 고맙고, 아버지로서 감격스러웠다”고 회상했다.

강진승씨는 대성초, 금당중, 여천여양고 탁구팀에서 선수로 활동했고 고등학교 졸업 직후 나주 중앙초, 송일고, 빛고을스포츠클럽 등을 거쳐 현재까지 탁구 코치로 활동하고 있다. 아내 역시 경신여중·고 탁구팀으로 소년체전에 출전했던 탁구 선수다.

“탁구 유전자”를 받은 강도현은 부모님의 영향으로 7살 때 자연스레 탁구를 시작하게 됐다. 어려서부터 만화영화보다 탁구 동영상에 더 좋아해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장 교내 탁구연습장에서 밤 9시까지 연습에 매진한다. 탁구를 시작하면 눈빛이 180도 바뀐다는 강도현의 강점은 고도의 집중력과 빠른 습득력이다.

그 결과 올해 4월 장흥에서 열린 ‘제51회 회장기 전국초등 탁구대회’에서 개인단식과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는 등 좋은 성적을 냈다.

강도현은 “그동안 정말 열심히 연습했기 때문에 올해 소년체전에서 메달을 딸 수 있을거란 자신감이 있었다. 금메달이 아니라서 아쉽지만, 아빠 뒤를 이어서 메달권에 이름을 올릴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웃어보였다.

강도현의 목표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



1997년 ‘제26회 전국소년체전대회’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던 강진승(41·왼쪽)씨와 올해 28년 만에 소년체전에서 광주 탁구 U12 메달을 획득한 강진승씨의 아들 강도현(12)군. <광주일보 제공>

‘골프 황제’ 아들 포효...찰리 우즈, 미국주니어 대회 첫 우승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아들인 찰리 우즈(16)가 미국 주니어 골프협회(AJGA)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찰리는 29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볼링 그린 스트림스 골프 클럽(파72)에서 열린 팀 데일리메이트 인비테이셔널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8개와 보기 2개를 묶어 6언더파 66타를 쳤다.

그는 3라운드 최종 합계 15언더파 201타를 적어내 윌리 고든(12언더파 204타) 등 공동 2위 선수들을 제치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찰리가 AJGA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찰리는 대회 전까지 AJGA 랭킹 604위에 불과했다. AJGA 주관 대회 우승 경험도 없었다.

이번 대회엔 AJGA 랭킹 상위 5명 중 4명을 포함해 총 72명이 출전했다.

찰리는 “압박감이 큰 상황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며 “앞으로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AJGA는 “찰리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AJGA 풀타임 출전권을 얻었고, 랭킹도 20위권 내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광양시청 볼링팀, 전국대회 종합우승 기록



광양시청 볼링팀이 전국볼링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27일 경북 상주월드컵볼링장에서 끝난 ‘제27회 한국실업볼링연맹회장기 전국실업볼링대회’에서 광양시청이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얻어내며 종합우승을 기록했다.

광양시청 김현서와 유승호는 남자일반부 2인조 경기에서 금메달을 합작했다. 김현서가 4게임 합계 930점(평균 232.5점), 유승호가 합계 1017점(평균 254.3점)으로 총 1947점(평균 243.4점)을 기록했다.

유승호는 개인 888점, 2인조 1017점, 3인조 871

점, 5인조 1004점을 얻으면서 합계 3780점(평균 236.3점)으로 개인종합 1위도 차지했다.

남자일반부 3인조 경기에서는 최복음·백승민·박상혁(이상 광양시청)이 3게임 합계 703점(평균 204.3점)으로 은메달을, 김현서·유승호·가수형(이상 광양시청)이 2게임 합계 521점(평균 260.5점)으로 동메달을 따냈다. 5인조 경기에서도 광양시청 최복음, 박상혁, 백승민, 유승호, 가수형이 1게임 213점으로 경기 광양시청과 공동 3등에 올랐다.

여자일반부에서는 곡성군청 김현미, 김예솔, 김문정이 3인조 경기 3게임 합계 731점(평균 243.6점)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다인 기자 kdi@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사모곡 비우면서 채우는... : 류현자 개인전

일시 : 2025-5-2(금) ~ 2025-6-1(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광주시립교향악단 395회 정기연주회 '황제들'

일시 : 2025-05-30(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41

2025. 5. 2. (금) - 6. 1. (일)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류현자 개인전